

2022년 2월 1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5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2. 15(화)	담당부서	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
담당과장	오광해 과장(043-870-5340)	담당자	노학엽 연구관(043-879-5347) 이동진 연구사(043-870-5343)

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,513억 투입 - 산업부 등 17개 부처청 합동 「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」 수립 -

-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,513억원(전년 대비 2.1% 증가)의 예산을 투입한다.
 -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·처·청은 '22년 제1회 국가표준 심의회*(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)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「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.
- *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(국가표준심의회)에 따라 의장(산업부 장관)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·차관급 공무원,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
- 17개 부·처·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('21~'25)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, 기업혁신 지원, 국민행복,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.

< '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>

기본계획의 4대 분야	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	예산
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	①디지털기술 표준화, ②국가유망기술 표준화, ③저탄소 기술 표준화	• 311억원
②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	①맞춤형 시험·인증 서비스 확대, ②국내외 기술 규제 애로 해소, ③新측정표준 개발·보급	• 1,494억원
③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	①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, ②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, ③공공·민간데이터 표준화	• 391억원
④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	①R&D-표준-특허 연계체계 확보, ②개방형 국가 표준체계 확립, ③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	• 317억원

<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>

- ① **(세계시장선점)** 디지털 기술 등 新유망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, 수소,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.
 - 6세대 이동통신(6G) 및 데이터·네트워크·인공지능(D.N.A) 등 ICT 분야 기술(과기부), 자율차 데이터 실증(산업부), 인공지능(AI) 제조플랫폼 표준 모델(중기부), 바이오연료·제지 품질평가(산림청)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.
 - 또한,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(환경부), 스마트 에너지(과기부), 신재생 에너지 인증 고도화(산업부)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.
- ② **(기업혁신지원)**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,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·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·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.
 -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(산업부), 정부입찰·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(조달청, 등의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업을 지원한다.
 -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가표준(KS) 제정(식약처), 수질분야 표준물질 개발(환경부),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(질병청), 스마트 정밀측정 시험소 교정자동화 체계 도입(방사청) 등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.
- ③ **(국민행복)**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,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,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.
 -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(산업부), 취약 계층 의료기기(식약처),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(문체부) 등의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.
 -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(환경부),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(산업부), 범정부 공통표준용어(행안부),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(국토부) 등도 개발한다.

4 (혁신주도형 표준체계) 국가 R&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 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.

○ 국가연구개발(R&D)-표준연계 촉진(과기부, 산업부, 중기부), 표준특허 전략 수립(특허청), 국가연구개발(R&D)과 표준성과 검증·확산(과기부, 산업부)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.

○ 민군 공통 표준화(산업부, 방사청),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(과기부, 산업부), 신산업 표준·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.
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“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”면서,

○ “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『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』 내용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

【붙임 1】 2021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 성과

【붙임 2】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 내용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과장(☎ 043-870-5340), 노학엽 연구관(☎ 043-870-5347), 이동진 연구사(☎ 043-870-53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

□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도 및 12개 과제별 대표성과

성과지표	성과목표	'21 실적	최종목표 대비 달성도
ISO, IEC 표준제안	(‘20) 1,073종 → (‘25) 1,400종	80종	24.5%
ITU 기고문 제안	(‘20) 7,482건 → (‘25) 8,482건	211건	21.1%
서비스표준 개발	(‘20) 1,216건 → (‘25) 1,316건	4건	4.0%
국제공인인증기관	(‘20) 962개 → (‘25) 1,100개	68개	51.5%
표준인증정보활용	(‘20) 2,200만건 → (‘25) 4,500만건	460만건	20.0%

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

- 1 디지털기술 표준화**
 - 블록체인 보안기술, 양자암호통신 등 국제표준(18종) 제안
 - 산업용 IoT센서 데이터 품질, 제조업무데이터교환 등 표준 제정
- 2 국가유망기술 표준화**
 - 전기차 무선충전(1종), 디스플레이 측정법(3종) 등 국제표준 제안
 - 뿌리, 식품 등 중소 제조업 설비공정별 SI표준모델 22개 구축
- 3 저탄소기술 표준화**
 - 이동식 수소충전소(2종), 선박용 액화수소저장탱크(1종) 등 국제표준 제안
 - 제제조 인증기준 및 친환경포장 설계 가이드라인 등 표준개발

②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

- 1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**
 -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 기술기준 개발(13건)
 -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제도 실시(746건) 및 ICT표준 기반 사업화 촉진(108건)
- 2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**
 - 범부처 인증제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술규제영향평가(315건) 실시
 - TBT종합지원센터 개소, 법정인증 외 입찰제한 규제완화
- 3 新측정표준 개발·보급**
 - 식품·환경·의료·이차전지·소부장용 표준물질 개발(98종)
 - 첨단소재 측정기술 개발(10건), 스마트정밀측정시험소 구축

③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

- 1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**
 - 공공안내 표지판 디자인 및 AR/VR 실증 가이드라인 표준제정
 - 생활제품 호환접속 표준화 대상(10종) 발굴
- 2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**
 - 농축산가공식품 및 수산제품 산업표준 제개정(66건)
 - 생활소음 표준화 및 안전보건·수송안전 기술기준 개발
- 3 공공·민간데이터 표준화**
 -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, 목재성질 평가 DB 구축
 - 디지털 트윈국토(교통, 지형 등) 참조모델 표준개발

④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

- 1 R&D-표준-특허 연계체계 확보**
 - 표준성과관리 전담기관(3개) 지정 등 표준성과관리 체계 구축
 - R&D-표준-특허 연계 과제 중 표준특허(80건) 창출
- 2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**
 - ICT 분야 사실상표준화 대응 민간포럼 지원(41개)
 - 한·미(반도체), 한·독(배터리)과의 표준협력대화 개최
- 3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**
 - 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지원(2개), 기업 표준화 컨설팅(40개)
 - 글로벌 표준전문가(176명) 및 TBT 전문인력 양성(718명)

- ① **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**(과기정통부 등 7개 부처청)

 - ① (디지털기술 표준화) D·N·A 등 ICT 핵심기술 및 6G, 스마트제조, 차세대 선박 등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등
 - ② (국가유망기술 표준화) 사물인터넷, 미래차(자율·전기차 등), 차세대 디스플레이, 바이오헬스, 시스템반도체, 소부장 기술 등
 - ③ (저탄소기술 표준화) 스마트에너지, 수소기술, 전기저장장치(ESS), 친환경선박, 재제조제품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, 온실가스 검증 등

- ② **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**(산업부 등 9개 부처청)

 - ① (맞춤형 시험·인증 서비스 확대) ICT 표준 기반 사업화,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,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 도입, 중소기업 표준화컨설팅 등
 - ② (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) 국내 기술규제 개선,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 및 입찰평가지 인증 최소화
 - ③ (新측정표준 개발·보급) 계량·측정 원천기술 확보, 감염병 진단검 사용 및 이차전지용 표준물질 등 개발·보급

- ③ **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**(행안부 등 11개 부처청)

 - ① (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) 전통문화 콘텐츠, 비대면 유통물류, K-방역모델, 사회적 약자보호, 생활제품 호환 표준화 등
 - ② (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) 재난안전, 이차전지(사용후전지) 및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, 가공식품, 수송안전, 생활소음 표준화 등
 - ③ (공공·민간데이터 표준화) 빅데이터 품질관리, 디지털 목재성질 DB 구축, 디지털 트윈국토(지하시설물, 실내공간정보) 표준화 등

④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(환경부 등 9개 부처청)

- ① (R&D-표준-특허 연계체계 확보) 표준연구개발성과 관리시스템 구축, 표준선행기술조사, 표준특허 창출 지원
- ② (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) 사실상표준화기구(ASTM, CODEX 등), 글로벌 포럼 등과 협력 강화, 국방규격 개선 제안 활성화 등
- ③ (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) 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지원, 표준전문 인력 및 TBT대응인력양성 등 기업의 표준화 역량 강화

라.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

- 디지털 기술 및 탄소중립 표준화 등 '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17개 부처청의 재정투자계획은 총 2,513억원

<2022년 17개 부처청 국가표준시행계획 예산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.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	2.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	3.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	4.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	합 계
과기정통부	12,430	105,398	1,650	13,345	132,823
행안부	-	-	2,113	-	2,113
문체부	-	-	1,920	-	1,920
농식품부	-	-	800	100	900
산업부	12,141	34,003	26,108	8,087	80,339
복지부	3,802	-	2,106	484	6,392
환경부	670	100	500	1,318	2,588
고용부	-	-	607	-	607
국토부	-	-	2,907	-	2,907
해수부	-	-	100	-	100
중기부	1,525	2,810	-	1,200	5,535
식약처	270	637	11	88	1,006
조달청	-	57	-	-	57
방사청	-	5,088	-	3,678	8,766
산림청	233	140	250	-	623
특허청	-	-	-	3,417	3,417
질병청	-	1,173	-	-	1,173
합 계	31,071	149,406	39,072	31,717	251,266